

신디사이저와 퍼커션의 독자적인 리듬기법 연구 - Sting의 “Nothing Like The Sun” 앨범을 중심으로 -

엄수한
경민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n Independent Rhythm Technique of Synthesizer & Percussions - Focusing on the Sting's "Nothing Like The Sun" Album -

Soo-Han Ohm

Dept of Applied Music, Kyungmin College

요약 스틱은 1985년 첫 솔로앨범인 <The Dream Of The Blue Turtles>를 필두로 세련된 감각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1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린 영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다. 본 논문에서는 스틱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폴리스 해체 이후 30년이 넘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인정받는데 큰 발판이 되었던 <Nothing Like The Sun(1987년)>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 중 'Straight To My Heart'와 'Be Still My Beating Heart'의 리듬 편곡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할 것이다. <Nothing Like The Sun>음반에 있는 곡들은 전체적으로 드럼파트는 기본적인 연주를 벗어나지 않고 전체적인 리듬분할의 역할을 여러 가지 퍼커션을 통해 하거나 신디사이저를 코드악기로서의 역할보다는 리듬악기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둔 곡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솔로 초기 스틱만의 독특한 악기별 리듬구성과 역할배분은 다른 뮤지션들의 음반과는 사뭇 다른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창출해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의 음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편곡적인 특징과 리듬적 특성, 즉 드럼비트를 쪼개서 리듬을 분할하는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퍼커션을 포함한 다른 악기들의 리듬분할을 통해 곡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Abstract Sting (Gordon Sumner) is a British musician and singer-songwriter. He was the principal songwriter, lead singer, and bassist for the new wave rock band 'The Police' from 1977 to 1984, before launching a solo career in 1985. With his stylish and sophisticated sensibility and musical spectra, he achieved 100 million album sales. In this thesis, after he disbanded the group THE POLICE, his career as a solo artist with his wide variety of musical colors has been acknowledged for his reputation over more than 30 years. Therefore, I analyze 'Sting' of music included in 'Straight To My Heart' and 'Be Still My Beating Heart' in. Songs in indicate that the drum part the tunes that there is in a record doesn't break away from the basic way of music. The role of the whole rhythm division through the various percussions or can see a synthesizer than the role as the cord musical instrument that there are lots of tunes placing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role as the rhythmic musical instrument more. The unique instrument-based rhythm of the early Sting and role dispensation create a unique sound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musician subsequently recorded. The feature and rhythmic characteristic, which is the arrangement that appeared outstandingly in this record, I am trying to explain about the way in which I lead the basic flow of the tune through the rhythm division of the other musical instruments which I split that is, the drum beat and break away from a rhythm from the divided general way and include a percussion.

Keywords : Be Still My Beating Heart, Blue Pacific, Chromatic Percussions, Nothing Like The Sun, Poly Rhythm, Rhythm Technique, Sting, Straight To My Heart

본 논문은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12년도 석사학위논문 요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 Soo-Han Ohm (Kyungmin College)

Tel: +82-10-5238-8392 email: ohmsoohan@hanmail.net

Received November 3, 2016

Revised November 8,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팝 음악을 좋아하는 대중들에게 낭만적인 감성이 풍부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연주하는 뮤지션을 꼽으라면 아마도 스티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Shape Of My Heart'나 'Fragile'처럼 한 번 들으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깊은 여운을 주는 멜로디와 그와 함께 작업을 한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세련되면서 깊이 있는 연주, 그리고 깊은 고독이 묻어있는 문학적인 가사가 첨가되면 여타 뮤지션들과는 다른 스티빙만의 음악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스티빙은 1985년 첫 솔로앨범인 <The Dream Of The Blue Turtles>를 필두로 세련된 감각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1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린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다.[1]

2011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린 스티빙은 싱어송라이터 겸 베이스 연주자로 1억 장이 넘는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16개의 그래미 트로피를 수상하는 등 대중과 평단의 고른 지지를 얻어왔다.[2]

본 논문에서는 그의 솔로 데뷔 30주년에 즈음하여 그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규 2집 <Nothing Like The Sun> 음반의 수록 곡을 중심으로 연주패턴과 음악적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대중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인정받을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의 원천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 것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티빙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폴리스 해체 이후 30년이 넘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인정받는데 큰 발판이 되었던 <Nothing Like The Sun(1987년-정규 2집)> 음반에 수록된 7/4박자 곡인 'Straight To My Heart'와 4/4박자 곡인 'Be Still My Beating Heart'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Nothing Like The Sun> 음반에 있는 곡들은 전체적으로 드럼파트는 기본적인 연주를 벗어나지 않고 전체적인 리듬분할의 역할을 여러 가지 퍼커션을 통해 하거나 신디사이저(Synthesizer)를 코드악기로서의 역할보다는 리듬악기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둔 곡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솔로 초기 스티빙만의 독특한 악기별 리듬구성과 역할배분은 다른 뮤지션들의 음반과는 사뭇 다른 그

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창출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의 음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편곡적인 특징과 리듬적 특성, 즉 드럼비트를 쪼개서 리듬을 분할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퍼커션을 포함한 다른 악기들의 리듬분할을 통해 곡의 기본적인 리듬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2.1 "Straight To My Heart" 분석

폴리스에서 솔로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스티빙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시각을 음악에 담아냈다. 그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Nothing Like The Sun>은 발매 즉시 까다로운 평단과 대중의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으며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다. 그는 이 앨범에서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음악 안에 녹여내는 태에 주력했다.[3]

<Nothing Like The Sun> 음반에서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곡을 손꼽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Englishman In New York'과 'Fragile'을 떠올릴 것이다.[4] 하지만 이 앨범을 찬찬히 들어본 사람이라면 8번 트랙의 'Straight To My Heart'를 들으며 다른 곡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박자의 느낌과 리듬감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곡은 스티빙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이국적인 그루브(Groove)가 가미된 7/4박자의 폴리리듬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 Intro 1~4 Bars [5]

위는 'Straight To My Heart'의 기본바탕이 되는 퍼커션과 스틸 드럼(Steel Drum)의 연주가 일품인 Intro의 1~4마디의 악보이다.

악보 없이 이 부분을 들으면 몇 분의 몇 박자인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Intro가 지난 후 나오는 마림바 톤의 테마패턴이 시작된 후에도 이 곡이 4/4 + 3/4로 구성된 7/4박자의 곡임을 여간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심중팔구는 새로 등장하는 악기가 테마패턴을 연주하는 그 시작점을 첫 박으로 생각하고 박자를 세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테마의 경우 한 박 반을 쉬고 연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서 듣지 않고서는 몇 박자의 곡인지 가늠하기가 힘들 것이다. 베이스 드럼마저도 강박에 나오는 경우가 없고 계속해서 잇박을 강조하며 싱코 페이션을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퍼커션 파트에서도 서로 다른 박의 느낌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리듬패턴들이 동시에 연주되기 때문에 더더욱 박자의 기준점을 찾기가 힘들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 했었던 폴리리듬(Polyrhythm)이다. 카우벨과 림 탭, 그리고 베이스 드럼 등의 각 악기들이 서로 따로 노는 듯한 연주행태를 보이며 뒤섞여 있다.

위는 시종일관 이 곡의 리듬을 이끌어 가는 7/4박의 Main Theme가 등장해서 Verse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의 악보이다. Intro 앞부분에서의 조금은 난해했던 느낌과는 달리 4/4 + 3/4의 리듬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다분히 의도된 편곡이라 하겠다.

Main Theme를 연주하는 마림바 톤의 신디사이저가 Verse에서도 계속 베이스 기타와 리듬을 맞춰 스타카토로 패턴을 연주하고 있다. 또 다른 신디사이저는 흥키통크 피아노 느낌의 사운드로 스틱의 메인 보컬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다. 흥키통크 피아노의 특성상 리버브(Reverb)가 거의 없이 플랜저(Flanger)나 코러스(Chorus)가 살짝 걸린 것 같은 디튠(Detune)된 느낌의 사운드를 연출하게 되는데, 스타카토로 같은 리듬패턴을 연주하는 베이스 기타와 마림바 톤의 리듬 사이의 공백을 파고들며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Verse부분에서는 보컬의 멜로디나 전체적인 리듬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진행을 반복해서 연주하고 있다. 이는 스틱의 음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다. 특히 이 곡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7/4의 익숙하지 않은 박자에다 폴리리듬까지 더해져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리듬에 대한 대중들의 괴리감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Verse부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B minor의 조성감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Chorus부분으로 전개되면서 나란한조(Relative Key)인 D major로 바뀌며 분위기의 전환을 꾀한다.

The figur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the 'Intro Theme Pattern & Verse 1-2 Bars'. It is organized into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includes Vocal, Synth 1, Synth 2, Dr./Pc., and Bass parts. The second system includes Vocal, Synth 1, Synth 2, Dr./Pc., and Bass parts. The score includes lyrics, musical notations,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such as 'Play 4 times', 'sim. throughout', and 'Background Solo ad lib'. The key signature is B minor, and the time signature is 7/4.

Fig. 2. Intro Theme Pattern & Verse 1~2 Bars

Fig. 3. Chorus 1~4 Bars

위의 악보는 ‘Straight To My Heart’의 Chorus부분을 옮겨놓은 것이다. 보컬을 살펴보면 Verse부분과 멜로디의 진행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Verse부분에서 시작된 7/4박의 리듬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악기 구성상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이리쉬 휘슬(Irish Whistle) 계열의 목관악기가 추가되어 고음역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리듬파트에는 핸드 클랩(Hand Claps)이 추가되어 강박에 지속적으로 어택을 주고 있다. 핸드 클랩 외의 다른 퍼커션들은 Intro부터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있지만 이 곡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베이스 기타와 마림바의 리듬패턴이 워낙 간결하고 느낌이 강해서 퍼커션들이 주는 폴리리듬의 임팩트가 앞부분보다는 다소 감소된 듯 느껴진다. 이 부분에서 새로 등장한 핸드 클랩은 쉬지 않고 강박에 내려 꽂혀서 마치 메트로놈(Metronome)을 켜 놓은 듯한 작각을 불러일으킨다.

Chorus부분의 끝부분과 맞물려 나오는 Bridge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지속되어 왔던 리듬패턴이 모두 사라지고 신디 스트링과 베이스 기타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4마디 후에 다시 몰아쳐 나올 리듬패턴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위한 숨고르기를 한다. 이 후에 다시 나오는 리듬패턴에는 16비트의 카운벨 리듬이 추가되어 앞부분보다 훨씬 강한 비트감을 보여준다.

2.2 "Be Still My Beating Heart" 분석

Fig. 4. Intro 1~8 Bars

위의 악보는 <Nothing Like The Sun>음반의 두 번째 곡인 ‘Be Still My Beating Heart’의 Intro 부분이다.

이 음반의 첫 곡인 ‘The Lazarus Heart’와 5번 트랙인 ‘They Dance Alone’과 더불어 페이드 인(Fade in)으로 시작되는 곡 중 하나이다. 4비트를 기본으로 한 드럼 연주 위예다 베이스기타와 피아노가 유니즌(Unison)으로 16비트의 Funk한 리프(Riff)를 연주하며 페이드 인 되는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곡 역시 ‘The Lazarus Heart’와 마찬가지로 드럼은 각 섹션마다 리듬 패턴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하지 않고 4비트를 기본으로 충실하게 연주하고 있다. 물론 하이햇 플레이나 베이스 기타와 피아노의 유니즌 리프는 16비트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 곡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드럼의 비트는 엄연히 4비트에 기본을 두고 있다. 드럼마저도 16비트 느낌으로 리듬을 쪼개서 연주했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깔끔한 사운드를 기대하긴 힘들었을 듯하다. 절제된 드럼연주 속에서도 간결하고 다이내믹한 하이햇 플레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곡의 전반적인 리듬을 이끌어가는 마누 카체(Manu Katché)의 연주는 이 곡의 백미라 하겠다.[6]

신디사이저 역시 첫 곡과 마찬가지로 크로매틱 퍼커션 계열의 마림바와 비슷한 톤이 사용되었는데 스틱의 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맷이다. 베이스기타와 피아노

의 유니즌 멜로디를 같이 연주하며 두 악기의 멜로디가 쉬는 부분에서도 16비트 리듬 패턴을 유지하며 코드톤과 인접음들을 사용하여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볼륨이 크지는 않지만 웨이커, 탬버린과 더불어 있는 듯 없는 듯 드럼과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며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

Fig. 5. Chorus 1~4 Bars

위의 악보는 이 곡의 Chorus부분을 옮겨 놓은 것이다. Intro부분과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같으나 Chorus부분이라는 특성 상 전체 악기들의 볼륨 밸런스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건반파트는 처음부터 나오던 16비트의 신디사이저 리프와 패턴이 계속 연주되고 있고 브라스(Brass)가 추가되어 패턴의 첫마디에 스타카토(Staccato)로 어택을 주며 Chorus부분을 살려주고 있다. 코드 체인지가 많고 브릿지 느낌이 강한 Verse3, 4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코드로 Chorus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이 곡의 특징 중 하나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 유독 돋보이는 것은 역시 케니 커클랜드와 앤디 서머스의 연주이다. 마누 카체의 드럼연주 역시 말 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지만, 케니 커클랜드의 피아노는 보컬 멜로디가 끝나는 부분과 브라스가 시작되는 지점 사이의 여백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블루지

(Bluesy)한 오블리가토를 선보이고 있으며, 앤디 서머스의 기타는 멜로디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몇 개의 노트만으로 기타의 느낌만 살짝 주는듯한 간결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Chorus부분의 보컬 멜로디를 살펴보면 앞부분의 멜로디에서 많이 사용했던 싱코페이션, 3연음, 2박 3연음 등의 사용과는 대조적으로 4분음표 만을 사용하여 스타카토로 멜로디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데, 마치 이 부분의 “Be Still My Beating Heart”라는 가사처럼 베이스기타의 역동적인 리프와 어우러져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마이클 프랭스(Michael Franks)의 <Blue Pacific> 음반에서도 신디사이저의 크로매틱 퍼커션 계열의 톤들과 웨이커 계열 악기들의 조합으로 드럼, 베이스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리듬 패턴을 형성해서 곡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편곡 스타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3번 트랙인 “All I Need”와 8번 트랙인 “Chez Nous”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 스틱 음악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나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다. 예컨대 마이클 프랭스의 음악에서는 베이스기타가 드럼 패턴에 묶여있어 많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스틱의 음악에서는 베이스가 드럼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아마도 스틱이 베이스 주자이기 때문에 보컬을 제외한 연주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마이클 프랭스 보다는 리듬적인 면에서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틱의 솔로 데뷔 30주년에 즈음하여 그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규 2집 <Nothing Like The Sun> 음반의 수록곡인 ‘Straight To My Heart’와 ‘Be Still My Beating Heart’를 중심으로 신디사이저와 여러 가지 퍼커션들을 활용한 다양한 리듬구성과 역할 배분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유지하며 대중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사랑 받을 수 있는 음악적 원천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석을 했다.

스팅의 음악을 분석해 보면 재즈, 락, 월드비트, 일렉트로니카, 힙합, 레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솔로활동 이전에 그가 거쳐 왔었던 뉴캐슬 빅밴드(Newcastle Big Band)나 라스트 엑시트(Last Exit), 그리고 폴리스(The Police)에서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들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부분이라 하겠다.[7]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은 풍부한 경험만으로는 누구나 스팅 같은 뮤지션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스팅은 자신이 늘 갈망했던 다양한 음악에의 욕구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악기들을 오랜 시간동안 배우고 꾸준히 연구해왔다.[8] 왜냐하면 각 악기 간의 음악적인 소통이 조화를 이뤄야만 좋은 작품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가 싱어송라이터이자 베이스 주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곡의 구성에 있어 리듬적인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을 쓰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편곡과정에 있어서 각 악기 간의 리듬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리듬이 곡의 스타일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혹자들은 스팅의 음악이 쟁선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세련되고 깊이 있는 연주 때문에 빛을 발한다고들 말한다. 그의 음악이 화려한 쟁선들의 연주를 등에 업고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9] 물론 그들의 연주가 스팅의 음악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참여해서 스팅의 음악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불살랐던 스팅과 함께 했기에 그들의 연주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스팅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베이스 연주자이다. 그는 대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음악을 한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곡을 쓴다.”라고 그는 말했다.[10] 대중성과 상업성에 치우쳐 자아를 상실해버린 뮤지션들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다. 66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며 왕성한 창작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를 보며 다시금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본 논문을 마무리하며 느끼는 것은 좋은 음악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과 끊임없는 열정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산물(産物)이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팅의 음악이 대중들로부터 오래도록 꾸준히 사랑 받는 건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References

- [1] <http://www.sting.com/biography>, 2011.
- [2] [https://en.wikipedia.org/wiki/Sting_\(musician\)](https://en.wikipedia.org/wiki/Sting_(musician)), 2016.
- [3] Gable, Christopher, *The Words and Music of Sting*, Praeger Publishers, p. 24-53, 2008.
- [4] Sandford, Christopher, *Sting, Back on the Beat*, Carroll & Graf Publishing, p. 56-57, 2007.
- [5] Hal Leonard Publishing, *Sting-Nothing Like The Sun*, Hal Leonard Publishing, p. 21-33, p. 86-117, 2007.
- [6] Sting, *Broken Music : A Memoir*, Heart Walk Publishing, p.34-36, 2014.
- [7] Clarkson, Wensley, *Sting, The Secret Life of Gordon Sumner*, Blake Publishing, p.38-43, 1996.
- [8] James Berryman, *Sting and I*, Blake Publishing, p. 86-91, 2005.
- [9] Jong Hwan Lee, *Pop Is Dead*, Lees & Bo ok Publishing, p. 322-323, 2004.
- [10] Jeong A Jo, *The Decisive Moment In Pop Music*, Dodulsaegim Publishing, p. 179-180, 2004.

엄 수 한(Soo-Han Ohm)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 학사)
- 1995년 10월 ~ 2000년 3월 : (주)도란미 레코드사 음악감독
- 1999년 10월 ~ 2008년 12월 : 그룹 “부활”의 멤버
- 2005년 5월 ~ 2010년 5월 : SG 워너비, 씨야, KCM, 다비치, 엠투엠 콘서트 음악감독
- 2012년 2월 :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방송음악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한국산학기술학회 이사
- 2001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관심분야>

대중음악, 작곡, 건반